

파업 확산 자동차 산업 '후진'

현대·기아·GM대우·쌍용 ... 국내·외 경쟁력 추락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1조원을 넘어서고 수출 선적이 중단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장기간의 경영 공백이 생기면서 주요 사설평가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본 데 이어 이번에는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생산과 수출 차질은 물론 국내외 고객들의 신뢰 추락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더구나 노조의 파업은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기아차와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끝장' = 20일로 파업 돌입 17일째를 맞은 현대차 노조의 부분 파업은 물리적인 생산 차질 규모만 7만4천611대, 총 1조306억원에 달해 1조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손실규모는 작년 임단협 관련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규모(5천795억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며, 2004년의 파업에 따른 손실규모(2천631억원)와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대로라면 현대차 노조의 임단협 관련 파업 중 생산차질 규모가 가장 컸던 2003년(1조3천106억원)을 조만간 넘어서 사상 최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뿐 아니라 전국 377개의 1차 협력업체들이 입은 손실만도 6천10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4천300여명에 달하는 2차 협력업체의 피해까지 합하면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19년째 파업을 지속해오면서 누적 파업 일수가 1년에 육박하고 누적 매출손실은 10조원, 생산차질 대수는 100만대를 각각 넘어섰다. 급기야 현대차는 생산 불량 부족으로 수출할 물량을 채우지 못해 19일부터 수출용 차량의 선적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차는 오는 23일까지 선적 계획을 전면 중단키로 했으며 자동차 전용선의 울산공장 수출전용부두 입항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접피해도 엄청나 = 그러나 이는

외형적인 생산차질에 따른 손실 규모만을 산정한 것이며, 국내외 계약 고객들의 신뢰 하락과 해외 딜러들의 동요나 이탈, 글로벌 신인도 저하 등 무형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추산조차 하기 어려운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신형 아반떼의 경우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인도가 늦어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고객 이탈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현대차는 투싼이 JD와위의 품질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아제라(그랜저)가 대형차부문 만족도 1위에 오르는 등 해외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이제 막 도약을 시작하려는 시점여서 노조의 파업이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망도 '시계 제로' =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의 수위를 낮추면서 협상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보여 노사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6시간 부분파업과 야간조 전면파업에서 벗어나 주·야간조 각각 4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회사 측이 제시한 타협안이 거부된 이후 양측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데다, 기아차와 GM대우, 쌍용차 노조가 파업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어 향후 조속한 사태의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를 제외한 여타 업체 노조의 파업은 아직 초기 국면인데다 부분 파업이긴 하지만, 이들 업체의 노사간 협상도 역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여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자동차 업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차질이 확대되고 손실규모가 커져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올릴때 '팍팍'

이상한 기름값

내릴때 '찝찝'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휘발유 가격이 빠른 속도로 많이 오르고 반대로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휘발유 가격이 더디게 조금 내린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맞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달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일 '휘발유 소매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석유제품가격 자유화가 실시된 1997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99개월간 휘발유 가격조정의 비대칭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가격조정의 비대칭이란 석유제품 가격이 원유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응해 다르게 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의 조정폭이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의 조정폭보다 더 크고, 더 빨리 진행되는 현상이다.

에너지경제연구 "가격 조정 비대칭"

분석 결과 주유소가 정유회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인수하는 휘발유 도매가격의 경우 1개월 전 및 2개월 전 원유가격 변동과 도매가격 변동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인 조정계수가 원유가격 상승시에는 1.242, 원유가격 하락시에는 0.740으로 나타났다. 원유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른 휘발유 도매가격의 비대칭 변동은 전국 16개 시·도 모두에서 매우 일관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유소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휘발유 소매가격의 경우 도매가격 상승시의 소매가격 조정계수는 0.989, 도매가격 하락시 소매가격 조정계수는 0.909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휘발유의 소매가격 조정은 도매가격 변동에 비교적 신속하고 대칭적으로 이뤄졌으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도매가격은 원유가격 변동에 비대칭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휘발유 유통경로가 정유회사→대리점→주유소→소비자, 정유회사→주유소→소비자 등 두 가지가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고 대리점에도 정유사 직영 대리점이 많은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휘발유 가격조정의 비대칭 현상은 정유사에 의해 주도됐다. /연합뉴스

현대家 '1세 경영' 막내렸다

정인영 회장 별세로 2세대 경영 전면 등장

정인영 한라건설 명예회장이 20일 별세함에 따라 현대가 창업 1세대 7명 가운데 5명이 세상을 떠났다.

현대가 1세대 6남 1녀 가운데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이 이어 지난해 10월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이 작고했으며 정인영 회장마저 숨을 거둬 현대가의 '1세 경영'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현대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1세대는 막내 정상영 KCC 명예회장 뿐이며 여동생 정희영 여사는 한국프랜차이즈 명예회장을 맡고 있지만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대의 신화를 일군 창업 1세대는 '왕회장'으로 불렸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서 시작됐다.

정주영 명예회장 형제 가운데 5남 정인영씨는 30대 초반인 1962년 독일에서 교통 사고를 당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다. 대신 출마에 활발한 대복사업을 전개했던 장남 정주영 명예회장은 2001년 3월 21일 향년 86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이번에 타계한 2남 정인영 명예회장은 1953년 현대건설에 입사, 형과 함께 현대를 일궈냈지만 1977년 한라의 전신인 현대양행으로 독립해 형인 정

주영 명예회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3남 정순영 명예회장은 1950년 현대건설에 합류, 성우그룹의 모기업인 현대시멘트 회장을 비롯해 현대종합금속, 성우종합건설, 성우정공 회장 등을 지냈으며 2000년 2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마무리한 뒤 일선에 물러났다가 지난해 10월 작고했다.

포니 수출 신화의 장본인인 4남 '포니장' 정세영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폐렴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따라 현대가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2남인 정몽구 회장을 주축으로 '현대 2세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연합뉴스

중공업 개척 '재계의 부도옹'

(不倒翁)

■ 별세한 정인영 회장

20일 별세한 정인영 한라건설 명예회장은 1980년 신근부의 강탈과 뇌졸중 투병 등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딛고 일어나는 의지를 보여 재계의 부도옹(不倒翁)으로 불린다.

1920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 마을에서 출생한 정 명예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첫째 동생으로,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귀국해 기자로 활약했다.

1951년 현대상운 전무로 입사한 뒤 1976년까지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현대건설 사장시절 1962년 10월 현대양행과 만도기계를 독자적으로 설립해 중공업에 입문했고, 1997년 그룹이 부도가 나기까지 한라그룹을 재계 12위까지 끌어올렸다.

1980년 신근부에게 현재의 두산중공업인 현대양행 장원공장을 넘겨줬으나, 다시 만도기계를 국내 최대 부품사로 키워내며 재기에 성공했다.

1989년 70세의 나이에 뇌졸중이 발



1997년 정 명예회장(오른쪽)이 리모스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

병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경영에 복귀, 세인들은 그를 휠체어의 부도옹으로 불렀다. 1992년에는 한라중공업(現 현대삼호중공업)을 전남 영암에 설립, '전남 조선'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고인의 불굴의 리더십으로 재계 12위까지 성장한 한라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의 파고에 휩쓸려 부도를 맞는다. 그러나 고인은 뼈를 깎는 혹

독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후 한라건설을 중심으로 또다시 재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고인은 수많은 시련과 극복의 삶으로 굴곡을 헤쳐왔으며 최근에는 만도인수를 통한 그룹 재건을 노리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기도 했지만 결국 세월의 벽을 넘지 못하고 86세로 생애를 마감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백화점엔 벌써 가을 옷

20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여성류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가을냄새가 물씬 풍기는 옷을 고르고 있다. 올 가을은 블랙과 그레이 컬러가 주를 이루고, 질제미와 심플함을 강조한 스타일이 강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골프 회원권 담보대출

시중은행으로 확산

일부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실시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 담보대출이 시중은행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난달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 회원권 대출이 확실한 틈새 시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우리는은행은 다음달 초부터 은행권 최초로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판매할 예정이다. 국제청 기준시가가 있는 골프장 입회금 회원권을 보유중인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골프장 회원권은 국제청 기준시가의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외 지역 회원권은 기준시가의 절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는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동금리대출은 6.2~7.1% 수준이 적용되며 고정금리대출은 6.7~7.6%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8~15%보다 낮은 수준이라 시장 내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또 골프관련 회사들과 제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골프강습 책자와 로고 볼 무료인쇄, 점수관리 앱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97년 삼성생명을 통해 첫 선을 보인 골프회원권 대출은 일부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등으로 확산되기도 했으나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프회원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1억원당 70만원 수준인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출 절차도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한 장점이 있다.

골프회원권 거래 시장 규모가 지난해 말 38조원 수준에 달하는 등 매년 커지고 있어 회원권 담보대출이 지난달 당국 규제 이후 위축된 주택담보대출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버냉키 한마디에... 세계 증시 동반 급등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동반 급등세를 보였다.

20일 일본의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일대비 446.58포인트(3.08%) 급등한 14,946.84에, 토크스 지수도 53.17포인트(3.60%) 오른 1,528.59에 장을 마쳤다.

한국의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도 전일대비 각각 39.65포인트(3.21%), 14.10포인트(2.61%) 오른 1,273.30과 553.91에 마감했다. 대만의 가관지수도 166.50포인트(2.65%) 오른 6,443.74에 장을 마쳤고, 싱가포르 ST지수는 오후 3시15분(한국시간) 현재 42.93포인트(1.83%) 상승한 2,384.72를 기록 중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12.19포인트(1.96%) 상승한 11,011.42에, 나스닥 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도 각각 37.49포인트(1.83%), 22.95포인트(1.86%) 오른 2,080.71, 1,259.81로 각각 마감했다.

같은 날 유럽증시도 급등세를 보여, 영국 FTSE 100 지수가 96.30포인트(1.69%) 오른 5,778.00에, 독일 DAX 지수와 프랑스 CAC 40 지수도 각각 142.44포인트(2.64%), 112.00포인트(2.37%) 급등한 5,539.29, 4,846.54에 장을 마쳤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고, FRB는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았다. /연합뉴스

한국 휴대전화 신화 시들어가나

모토로라 '약진' ... 삼성·LG '주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업체들이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무선통신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모토로라는 2분기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며 약진을 거듭했다.

20일 모토로라 코리아에 따르면 모토로라 미국 본사는 올해 2분기에 108억8천만달러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의 84억1천만 달러에 비해 29%의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15억2천200만 달러, 순이익은 13억8천400만 달러(주당 55센트)였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9억3천300만 달러(주당 37센트)에 비해 48% 증가했다.

2분기 휴대전화사업 부문 매출은 71억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억9천900만 달러로 11.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남회토건	인전관리 신입 및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2	062-520-1051
한국토개발	한화 푸디스트 호남출장소 마케팅담당 인력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7/23	02-729-3829
서울항공여행사	경리업무, 여권 비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7/24	062-225-3636
유도실업	기술영업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62-953-4711
토임건설	광주 상무자이 아파트 부대토목 공사 주임	고졸/경력2년	2,000~2,200	07/25	062-604-1336
진합광주공장	용접생산관리	고졸/경력1년	1,800~2,000	07/26	062-951-3901
엔칼리스	편집자이나너 경력직	고졸/경력2년	1,400~1,600	07/28	062-232-8280
성신중공업	사무보조/남여건설업체경력자,강구조물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30	062-943-3909
비치트	판매관리직 사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7/31	062-650-2205
뉴비이오	제품 입출고관리/재고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973-6995
인포텍스	UNIX 기반 SIP Server 개발, VolP 관련 개발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7/31	062-380-8056

<광주정보리아 512-6210 제공>